

## 민선8기 시·도지사, 해묵은 현안 돌파구 찾을까

광주, 어등산·케이블갯·쇼핑몰  
전남, 의대·흑산공항·인구감소  
군공항·SRF·경제통합 등 협력

광주·전남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민선8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시·도 수장들의 로드맵과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등산 케이블갯 설치 ▲복합쇼핑몰 유치 ▲지산 나들목(IC) 개통 등 해묵은 문제부터 시민 열망이 높은 사업까지 현안이 쌓여 있다.

2005년 계획 수립 후 17년간 잠음만 낳았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대표 현안 중 하나다.

지난달 7월 시정연설이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가각되면서,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다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호와 개발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도 꼽히는 무등산 케이블갯 설치도 뺄놓을 수 없다.

광주시와 동구가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발을 원하는 시민단체와 보호를 외치는 환경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3·9대선에서 광주지역 뇌관으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지에 대한 시민 열망이 높은 상태지만,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반발을 극복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1차로 진출로 구조로 인한 안전성 미흡 문제로 수개월째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지산 나들목(IC)도 문제다.

강 당선인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빠른 해결을 약속한 만큼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유치 ▲흑산공항 건설 ▲인구감소 해결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사업 투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논의할 의정협의체가 지난해 2월 열린 뒤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대립 속에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전남개발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8기 비전·공약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흑산공항 건설도 주요 현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신안을 방만한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환경영향평가를 필요한 만큼만 하고 원안대로 흑산공항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선8기에서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인구 감소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전남 인구는 지난 2004년 20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 말 183만 2,80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대표적인 협력 과제인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나주 열병합(SRF)발전

소 기동,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경제통합 등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8기 밀그림을 그리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비전·공약 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비전·공약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운영방향과 공약 현황 등을 논의했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 중3·고2, 국·영·수 학력 코로나 이전보다 하락했다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3과 고2 학생의 국·영·수 주요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전체 중3·고2 학생의 약 3%인 2만2,297명을 대상으로 표집평가를 한 결과 중·고등학교 주요과목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

은 늘었다. 성취수준은 우수학력(4수준), 보통학력(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즉 '3수준 이상'은 교과과정의 50% 이상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1수준'은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다.

구체적으로 중3 국어 과목에서 3수준 이상인 학생 비율은 2020년 75.4%에서 지난해 74.4%로 1%포인트 하락했다. 중3 수학 과목에서도 3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57.7%에서 55.6%로

2.1%포인트 줄었다. 특히 고2 국어 과목 3수준 이상 비율은 64.3%로 지난해 대비 5.5%포인트 감소했다. 영어 과목도 지난해 대비 2.2% 줄어든 74.5%로 집계됐다.

다만 중3 영어와 고2 수학은 64.3%와 63.1%로 각각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2.3%포인트 늘었다.

1수준(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의 경우 중3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고2는 확대됐다. 중3 1수준의 경우 국어 6.0%(지난해 대비 0.4%포인트 ↓), 수학 11.6%(1.8%포인트 ↓), 영어 5.9%(1.2%포인트 ↓)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고2 1수준 경우는 국어 7.1%(0.3%포인트 ↑), 수학 14.2%(0.7%포인트 ↑), 영어 9.8%(1.2%포인트 ↑)로 나타났다.

/이나라 기자

## 김영록 "우주개발법 개정안 통과 환영"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활용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이다. /우성진 기자

#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JUVENANTE